

“동기인 남자전도사는 단 위에서,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단 밑에서 설교시키더군요. 여성은 봉사·심방 때도 주로 부역을 거드는 역할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인가. 이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도 많았고, 여성을 목사나 신부로 인정하는 문제까지 국내외에서 늘 시비가 돼왔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여성에게도 목사안수를 허용하자는 헌의가 63년째 번번이 기각됐고, 성공회에서조차 지난달 서울교구 총회를 열어 여성부제 인정 여부를 다뤘으나 부결시켰다.

기독교감리회, 기독교장로회교단 등은 이미 여성 목사가 활동중이라는 예를 들어 점차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교회 밖에서 볼 때 교회의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 심지어 교회를 “여성차별의 마지막 장”이라고 분개하는 교회 여성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듯 여성이면서 달동네 공단

박봉에 가사노동 이중고 교회내 ‘성차별’도 고통

‘여성민중목회자 생활실태’ 발간

그리고 기지촌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꾸려가는 여성민중목회자들의 생활실태가 지난주 ‘여성주간’에 맞춰 지난 11일 <한국여성민중목회자—그들의 사역과 삶>이라는 소책자로 나왔다. 만든이는 여신학자협의회(공동대표 김애영·윤순녀·정영순)로 91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 교단의 31명을 설문, 편답했다. 당시 여성·민중·목회 이 세가지를 아우른 이는 예장통합의 경우 16명, 기감 24명, 기장 12명이 전부였다.

이들은 주로 1년에 1천만원 이하(71%)의 예산으로 도시빈민지역이나 공단에서(81%) 30평보다 좁은(69%) 교회를 세내 일한다.

교인들은 대개 30명이 안되며 20대 이하(61%)가 주류다. 또 이사가 잦거나(29%) 문제아(19%) 소외(19%) 결손가정(16%)이라는 고민을 안고 산다. 여성목회자들은 매월 24만원 이하의 봉급을 받으면서(81%) 이런 환경을 부려안는다. 대다수(68%)가 30대인데 65% 가까이가 “가족생활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 독신이다.

결혼한 목회자들은 “딸이 국민학교 3학년인데 내 목회활동 시간의 상당부분이 저녁시간이라 큰 문제”라든지 “주부로서 집안일이 말이 아닙니다. 여성 목회자들에게도 배우자의 협조가...” 등 가부장제 사회가 강요하는 삼중고에

지쳐 있기는 여느 직장여성과 마찬가지로다.

하지만 이들의 고민은 주로 여성이어서라기보다 민중이기 때문에 비롯된다고 나타난다.

“내가 기지촌 여성과 같이 매춘하면서 살 수는 없어서” 민중의 고민을 나누지 못해 한숨쉬며 “월세내는 날이 다가오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데모나 하는 이상한 교회라는 악성루머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이낳고 하혈이 심해 누렇게 뜬 얼굴로 한달 만에 공장이나 미싱일을 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 앞에서 말문 막히는” 고뇌가 있다.

이들의 기성 교회에 대한 비판은 따갑다. “기복신앙, 개인구원에만 치중하고 기업화됐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적 관점에서 돌보는 일은 별로 없어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고요. 구제사업은 가시적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교인화하는 작업에만 미달리죠” 등이 그것이다. 275-7754